

# 미국 노동계의 불안한 구세주: SEIU의 앤디 스텐 위원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① - 미국

정선욱 (미국 코넬대학교 노사관계학 박사과정)

## ■ 머리말

미국 노동정치에 관한 한 오바마 대통령 다음으로 가시적인(visible) 사람이 누구냐는 질문에, 요즘 열에 아홉은 SEIU(Service Employees International Union: 보건, 공공부문, 관리부문 등 주로 서비스 업종 중심)의 앤디 스텐(Andy Stem) 위원장을 꼽는다. 1년에 10만 명씩 조합원을 늘리는 조직화 방식에, 노동조합에 별로 관심이 없거나 노동운동을 비난하던 보수언론이나 비즈니스 스쿨까지도 매우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의 언어구사 능력 또한 주목을 끌고 있다. '기업경쟁력', '상생', '협력', '생산성' 등 일반시민은 물론 사용자나 정부에서 호감을 가질 만한 용어를 잘 구사한다. 이런 이유로 그는 초청강의나 인터뷰의 1순위에 들고 있으며, 노동조합 위원장 이미지를 훨씬 젊고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모습으로 바꾸는 데 커다란 일조를 했다.

이렇게 높은 대중적 인기를 얻으며 미국 노동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가 최근 들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조합원 숫자 늘리기에 모든 것을 거는 그의 조직화 방식이 실은 미국 노동자에게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해를 끼치며, 또 조직 내 반대 의견을 허락하지 않고 측근 부패에 관대한 모습으로 인해 SEIU를 문제 많은 이익단체로 전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최근 미국 내에서 부쩍 늘어난 앤디 스텐 위원장에 대한 여러 비판을 최근 언론 기사를 바탕으로 소개하고자 한다.<sup>1)</sup>

## ■ 조직화 방식에 대한 비판

앤디 스텐과 SEIU에 제기되는 가장 큰 비판은 조직화 방식이다.<sup>2)</sup> 이와 관련 최근 가장 큰 비난을 받았던 사건은, SEIU가 소덱소(Sodexo), 컴퍼스(Compass), 아라마크(Aramark) 등과 2008년 5월에 맺은 협약이다. <월스트리트저널>에 의해 밝혀진 이 비밀 협약은, 사용자 측이 노조화 사업장과 노조 규모를 결정할 수 있게끔, 즉 어느 곳에 노조를 설립하며 노조원 규모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사용자 측에 주도권을 주도록 허용한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은 노조원의 파업권을 포기하고, 노조원이 노조 게시판에 사용자 측을 공격하는 표현을 쓰면 안 되며, 이러한 비밀협정 내용이 노조원에게 공개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이러한 조직화 방식을, ‘기업식 노조주의(corporate unionism)’의 전형이라고 비난한다.<sup>3)</sup> 즉 기업을 운영하듯이, 소수의 최고경영자들이 모여 기업의 나아갈 바를 결정하고 그 결정이 실행되기 직전이나 실행된 순간에 조직원들에게 통보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조직화 방식의 맹점은, 조직은 점점 커 가지만 작업장 노조는 현저히 약해지며 따라서 조합원의 목소리는 점점 더 들리지 않게 되고 조합원은 단지 조합비 내는 기계로 전락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최근 앤디 스텐에 의해 쫓겨난 샬 로셀리 전 UHW(United Healthcare Workers : 의료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조직 확대가 조합원의 권리를 희생시키면서 진행된다면 그것은 절대 승리라고 볼 수 없으며, 늘어나는 조합원 숫자에 함몰된 앤디 스텐은 조직의 생동성에 큰 해악을 끼치고 있는 중”이라고 앤디 스텐을 비난하고 있다. 또 다른 조합원 마이클 토레스는 “우리의 적은 하나가 아니고 둘”이라며, “우리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SEIU라는 조직과도 싸워야 한다”고 SEIU의 조직화 방식을 비판했다. 실제로 이러한 비판은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 최근 SEIU가 맺은 일련의 협약 내용을 보면, 조직은 커 가는 대신 현장 조합원이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졌으며 기본 권리마저 협약으로 제한하고

- 1) 이 글에서는 앤디 스텐과 SEIU에 제기되는 비판성 기사, 즉 부정적 측면을 주로 다루기로 한다. SEIU의 혁신적인 조직화 방식과 조직운영 전략 등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최근 <레디앙>에 연재된 이근원의 「미국노동운동 답사기」를 참조 바람. <http://www.redian.org/news/articleView.html?idxno=12281>
- 2) 참고 언론기사에서, SEIU내의 앤디 스텐의 절대적인 입지 때문에 SEIU의 문제점은 곧 앤디 스텐의 문제로 다루어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었다.
- 3) 워싱턴 포스트 2008년 5월 27일자 기사에서, 샬 로셀리 서부UHW 위원장이 앤디 스텐의 조직화 방식을 비판하며 쓴 용어.

있다. 그리고 SEIU는 노조를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주정부로부터 보조금을 타낼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사용자 측을 설득해 왔으며 실제로 캘리포니아 의료산업 사용자들은 SEIU의 로비 덕택에 주정부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었다. 즉 사용자 측 입장에서 보면 아주 약한 기능의 노동조합을 허락해 주는 조건으로 주정부 보조금도 받고 ‘노사협력기업’이라는 대외이미지도 제고하는 등, 전혀 손해 볼 것이 없는 협약인 것은 분명하다.

이에 대해 앤디 스톤 진영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든 간에 노조가입률을 높이는 것이다. 다국적 기업의 시대에 노동운동의 초점은 일개 작업장이 될 수 없다. 노동조합은 주나 국가 중심으로 옮겨가야 한다. 따라서 사용자 양보를 위해 조합원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해야 한다(앤디 스톤). 큰 그림이 중요하다. 노조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낫다. 전체 조합원 숫자를 늘려 협상력을 늘리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이해해 달라. 조합원이 줄어드는 실정에서 노조가 없는 것보다 조금 양보하더라도 노조를 확대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 볼 때 유리하다. 우리가 조직화에 나서지 않으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는 저임금 노동자들은 평생 노동조합을 누려보지 못할 것이다(앤디 맥도날드 SEIU 대변인). 한두 군데서만 강한 노동조합이 되길 원하는가, 아니면 전국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노동조합이 되길 원하는가?(톰 드부루인, 펜실베이니아 지역 의료산업 노조위원장).

이러한 양 진영의 주장에 대해, 제니스 파인(릿거스대학교) 교수는 “이번 논란은 노동조합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노조 성장 없이는 노동자들이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과 그 최소한의 기준(standards)에 소홀히 하면 그것 또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평했다.<sup>4)</sup> 리차드 허드(코넬대학교) 교수는 SEIU의 조직화 방식에 대해 “미국 내에서 로컬 노조를 전국단위로 재조정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으로, 사용자 측이 점점 국제화하면서 조직을 키워나가고 협상력을 키워나가듯이 노동조합도 그렇게 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평하였다.<sup>5)</sup> 그러면서도 그는 비판 진영의 주장 역시 틀리지 않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논란은, SEIU의 조직화 성공담이 어려운 미국 노동 현실을 감안할 때 칭찬받아야 마땅하나, 노동조합의 본연의 기능 중 하나인 조합원의 목소리(Voice)와 기본 권리를 소홀히 하면 안 된다는 아주 기본적인 결론으로 모아지고 있다.

4) 뉴욕타임스, 2008년 2월 29일자 기사. Union Grows, But Leaders Faces Criticism.

5) 워싱턴 포스트, 2008년 5월 27일자 기사. A Leader, His Critics And a Union Divided.

## ■ 내부민주주의 및 측근 부패 논란

SEIU에 제기되는 또 다른 비판은 앤디 스텐 위원장과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1월 말 벌어진 캘리포니아 의료산업노동조합(UHW)의 위원장 교체 사건은 이를 잘 보여준다. UHW는 SEIU내 두 번째로 큰 조직(15만 명)으로 위원장 셸 로셀리는 실력과 인격을 인정받는 노조위원장이다. 앤디 스텐 위원장은 일찍이 그를 SEIU의 최고위원회(Executive Board) 위원에 발탁 하였었다. 하지만 로셀리 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앤디 스텐의 조직운영 방식과 조직화 방식에 바른 소리를 하였고 철학적 차이를 들며 스스로 최고위원회를 사퇴하였다. 지난해 앤디 스텐 위원장은 여러 근거를 들어 그를 조사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전 노동부 장관이 위원장인 조사위원회는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였다.<sup>6)</sup> 이에 따라 지난 1월 말 SEIU 본부는 그를 대신할 두 명의 관리자를 UHW에 내려보내고 15만 명의 UHW 조직을 분할해 일부는 다른 조직에 합병시켰다. 이 번 효과는 대단하다. 로셀리 위원장은 “나같이 큰 조직의 수장도 한 번에 교체되는 것을 본 사람들은 앞으로 감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없을 것”이라고 SEIU를 비난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셸 로셀리 위원장의 잘못은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그가 앤디 스텐 위원장 노선에 반기를 들지 않았더라면 지금처럼 쫓겨났을까 하는 문제이다. SEIU 비판자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 앤디 스텐 위원장은 급속히 커 가는 조직의 요직을 그가 신뢰하는 사람으로 채우기 위해 무명의 활동가를 갑자기 큰 조직의 수장으로 앉히기를 거듭했다. 문제는 그러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어처구니 없는 문제를 일으켜 조직이 제명하기 전에 이미 검찰에 불려가고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등 조직 망신을 톡톡히 시켜 왔다는 것이다. 이러한 발탁 인사의 과오에 대해 그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어떤 경우 시간이 흐른 뒤 문제를 일으켰던 인사를 다른 지역의 책임자로 앉히기도 하였다. 이하에서 측근 비행의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sup>7)</sup>

6) 자세한 내용은 [www.seiuvoice.org](http://www.seiuvoice.org) 참조.

7) SEIU의 조직내 부패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상세히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음 기사의 정리 내용을 참조하였다. [http://www.nydailynews.com/news/2008/12/30/2008-12-30\\_seiu\\_president\\_andy\\_stem\\_is\\_a\\_threat\\_to.html](http://www.nydailynews.com/news/2008/12/30/2008-12-30_seiu_president_andy_stem_is_a_threat_to.html)

### 타이런 프리만(Tyrone Freeman)

그는 조지아주의 단위노조 활동가에서 앤디 스텐에 의해 갑자기 남가주의 대형 홈케어노동자 노동조합(Local 6434) 위원장으로 발탁되었다. 그는 LA 타임스에 그의 비행이 대서특필된 후 자진 사임하였다. 그는 노조 활동기금 중 60만 달러를 횡령하였으며, 자신의 하와이 결혼식 비용 8,000 달러와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매달 장모에게 8,000달러를 노조 기금으로 지급하였다.

### 릭만 잭슨(Rickman Jackson)

앤디 스텐에 의해 미시건주의 SEIU 의료산업노조 위원장에 발탁된 그는 예전 노조였던 남가주 노조와 현 노조인 미시건 노조 두 군데에서 월급을 중복 수령한 것이 발견되었다. 또한 그는 노조 기금에서 주택임대비용으로 매달 2,500달러까지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비행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얼마간 지난 후 그는 캐나다의 SEIU 노조에 새 일자리를 얻었다.

### 아넬리 그라지다(Annelle Grajeda)

앤디 스텐에 의해 LA의 공공노조(Local 721) 위원장으로 발탁된 아넬리는 전 남자 친구에게 SEIU 컨설팅을 이중으로 맡겨 거액을 수령할 수 있게 하였다는 사실이 지역 언론에 밝혀져 황급히 종적을 감추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이상의 세 사건의 공통점은, 이 사람들이 노조가 합병되고 기존의 노조위원장이 바뀌는 틈에 앤디 스텐에 의해 발탁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정을 감안할 때 따라서 지난 1월 말에 벌어진 UHW의 셸 로셀리 위원장 교체사건은 SEIU의 내부에서조차 이해되지 않는 분위기이다. 조사위원회가 제시한 사유들은 위의 사례들과 비교하면 경징계에 머물 정도밖에 안 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sup>8)</sup> 언론에 소개된 한 내부인사의 표현을 빌면 다음과 같다. “현재 SEIU 조합원들은 두 가지 복합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앤디 스텐 위원장에 대한 무한한 존경심,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내부 문제점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 우려감이다.”

8) 조직에 해악을 끼쳤다는 일부 사례들조차 해석상의 논란이 많은 사유들이다. 자세한 내용은 [www.seiuvoice.org](http://www.seiuvoice.org) 참조.

## ■ 글을 마치며

친노동 성향의 오바마 당선과 친노동계 인사인 힐다 솔리스(Hilda Solis)의 노동장관 발탁 등으로 한껏 고무된 미국 노동계는 SEIU의 조직 내분과 계속되는 SEIU 부패 사건에 대해 실망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 근로자 자유선택법안(EFCA) 통과를 위해 단결해도 모자랄 판에 내부에서부터 문제점을 노출시키는 것에 매우 실망하는 모습이다. 현재 SEIU 논란의 중심에는 오늘 의 SEIU를 일군 주인공 앤디 스텐 위원장이 있다. 그가 계속해서 논란의 중심에 남아 있을지, 아니면 조직 내부의 문제점을 슬기롭게 헤쳐나갈지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그가 지적되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간과할 경우 어느 비판자의 표현처럼 그는 오바마 시대의 부채(liability)<sup>9)</sup>로 전락할 것이고, 정반대의 경우, 그는 어려운 시기에 미국 노동운동의 재활성화에 기여한 미국 노동운동의 큰 인물로 기억에 남게 될 것이다.



이번 1월에 위원장이 교체되고 조직이 재정비된 UHW웨스트의 항의 모습  
출처 : <http://www.seiuvoice.org/article.php?id=686>

### 인물 소개 : 앤디 스텐(Andy Stern)

1950년생으로 뉴저지에서 태어났으며 펜실베이니아대학을 졸업하였다. SEIU 조직가로 1973년 시작해서 펜실베이니아 로컬의 위원장이 되었다. 1980년 SEIU의 최고위원회에 뽑혔으며 1996년 위원장이 되었다. 1996년 90만 명이던 조합원은 매년 10만 명씩 늘어서 현재 200만 명에 달하고 있다. **KLI**



앤디 스텐(Andy Stern)  
출처 : <http://www.seiu.org/a/ourunion/andy-stern.php>

9) 2009년 1월9일 워싱턴포스트 기사(Troubles in Service Workers' Union May Dim Hopes for Labor)에서 SEIU의 라이벌 캘리포니아 간호사노조(California Nurses Association, CNA)의 로즈 디모로 위원장이 쓴 용어.

---

---

## 참고문헌

---

---

- 레디앙(Redian), 「이근원의 미국노동운동답사기」 1-5, 2009년 1월 14일~2월 2일.
- 샌프란시스코베이가디언, “The SEIU Strikes Back,” 2008년 4월 16일
- 뉴욕타임스, “Unions Grows, But Leader Faces Criticism,” 2008년 2월 29일
- 내셔널리뷰, “The Strange Case of SEIU,” 2008년 4월 2일
- Labor Notes, “SEIU Launches Takeover of UHW—West,” 2009년 1월 29일
- The Nation, “Andy Stem on The New Moment,” 2008년 11월 25일
- Is Andy Stem’s SEIU Organizing Model Good or Harmful for Workers and Unions?
- 레이버에듀케이터, 2008년 4월 9일
- The New Republic: Labor’s Love Lost: Will Andy Stem Save Unions, or Destroy them?
- SEIUVOICE.ORG 2008년 4월 5일
- 워싱턴포스트, “Troubles in Service Workers’ Union May Dim Hopes for Labor,” 2009년 1월 9일
- 워싱턴 포스트, “A Leader, His Critics And a Union Divided,” 2008년 5월 27일
- 샌프란시스코 게이트, “SEIU Takes Over Local Health Care Workers Union,” 2009년 1월 28일
- 월스트리트저널, “Let’s Share the Wealth, The Weekend Interview with Andy Stem,” 2008년 12월 6일
- The Nation, “Andy Stem: Savior or Sellout?,” 2007년 6월 27일